

어려워진 수준별 수능, 입시지도 대혼란 예고

난이도 조절 사실상 실패...영어 B형이 대입 가르치는 변수될 듯



“괜찮아, 고생했어” 7일 오후 광주 동아여자고등학교에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한 수험생이 교문 앞에서 기다리던 엄마를 보자마자 그동안의 고생이 생각났는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7일 치러진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반적으로 어렵게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처음 시행된 수준별(A/B형) 시험으로 인해 A형과 B형 응시자들의 성적 수준과 분포를 짐작하기 어려워 입시지도에 대한 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6·7면> 광주지역 교사·수험생들은 국어는 A/B형 모두 지난해 수능보다 약간 어려웠고, 수학은 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영어는 A/B형의 난이도가 뚜렷이 구별돼 B형을 선택한 수험생들이 고전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수능 결과에 따른 대학 입시에서는 상위권이 몰린 영어B형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성적 하위권이 쉬운 A형으로 31.6%가 옮겨면서 상대적으로 B형 수험생들의 성적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장광재(승덕고) 대학교육협의회 전문위원은 “5등급 이하의 수험생들이 대개 영어 B형에서 A형으로 갈아타면서 3등급이던 B형 응시자가 5등급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등급 하락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영어가 수시 합격을 가르치는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히 “광주교대처럼 영어 A·B형 모두를 허용하는 대학의 경우 A형 응시자가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입시업체들도 영어 영역의 등급 커트라인을 예상하기가 어렵다고 털어놓았다. 이에 따라 입시 학교의 대학 입시지도에도 대혼란이 예상된다. 김선구(광양중마고) 전남진로진학상담교사협의회장은 “수능 이후 입시 전략을 치밀하게 짜야 한다”며 “가체점을 토대로 정시 공략과 수시 최저학력기준 통과 여부 등을 판단하고, 여의치 않다면 수시2차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는 11일까지 문제 및 정답에 대한 이의 신청을 받고 18일 정답을 확정해 발표한다. 수능 성적은 27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수능 문제풀이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알림



지난 3월에 열린 제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개강식.

제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광주·전남 리더들을 모십니다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1·2월 정치특강 특별편성

‘제 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 광주·전남지역 각계의 리더들을 모십니다. 광주일보는 지난 3월부터 지역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의 유력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제 1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를 성공리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1년과정으로 정치·경제·사회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약하고 있는 국내 최고 전문가를 초빙, 강의와 토론을 통해 국가와 지역사회 주요 영역의 시대적 과제를 집중 탐구하는 최고급 교육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또 내년 학기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1, 2월 정치컨설팅 및 정치특강을 특별편성했습니다. ‘제 2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는 61년 전통에 빛나는 광주일보의 브랜드 가치와 영향력에 걸맞는 지역사회의 최상의 인적 네트워크를 수감생들에게 구축해 드리겠습니다. 광주일보가 평생가족으로 모시는 최고급 교류의 장에 지역 리더들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모집인원: 00명
- 지원자격: 기업 최고 경영진 및 임원, 국회의원·자치단체 의원 지방자치단체·정부기관·단체장 및 고위 관리자 법조 의료·교육·문화·예술계 등 전문가
- 교육기간: 2014년 1월~2014년 12월(1~2월 정치특강)
- 강의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8시30분(호텔식사제공)
-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2013년 11월 4일~12월 20일
- 합격자 발표 및 등록: 서류전형후 개별통보
- 문의: 광주일보 프로젝트팀 (062)220-0555

光州日報社

“전일빌딩은 호남언론 탯자리...미디어교육센터 만들자” 활용방안 시민 토론회

창작스튜디오 설치·문학관 설립 등 다양한 제안

7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전일빌딩 1층에서 열린 광주시의 ‘전일빌딩 활용방안 시민 대토론회’에서 언론박물관의 기능을 담은 가치 미디어교육센터를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비롯해 문학관, 공동체 활동센터 설립 등 다양한 제안이 나왔다. 특히 이날 강운태 광주시장이 직접 사회를 맡아 전체 의견을 수렴한 뒤 전일빌딩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시설물을 설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언론박물관 등을 담은 미디어교육센터 등이 들어설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아문화전당이 연계해 미디어 콘텐츠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의 미디어 교육, 디지털 미디어 연구 등도 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재 조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도 “전일빌딩은 금남로 1가 1번지이자, 호남언론 1번지”라며 “호남언론의 혼이 깃들여 있는 역사적 상징성이 큰 장소인 만큼 언론박물관 기능을 갖춘 가치 미디어교육센터 등 언론관련 시설물이 들어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순이 한국미술협회 광주지회장은 국제창작스튜디오 설치를 제안했다. 정 회장은 “국내의 작가들이 머물면서 작업하는 모습을 외부에서 볼 수 있는 오픈형 스튜디오를 제안한다”며 “콘텐츠 개발은 물론 새로운 관광 상품 개발 등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술의 거리 변영희 관계자도 “전일빌딩은 아시아문화전당과 연계할 수 있는 문화창작 공간이 들어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창수 광주문인협회 회장 등 일부 참석자들은 문학관 설치를 강력 주장했다. 노 회장은 “타 지역에서 문학의 도시로 부르는 광주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유명 문학인이 많지만, 전국에서 문학관이 없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고 주장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전일빌딩에는

건물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시설물, 다시 말해 이곳이 아니면 안 되는 시설이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다”며 “빠른 시일 내에 최종 활용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2014 학부 신입생모집
수시 2차모집
2013년 11월11일(월)~15일(금)
광신대학교
입학문의(062)605-1114

광주일보 ABC협회 인증
창사 61주년 호남 최대 발행부수
since 1952
광주일보는 지역 대표 정론지입니다

황칠나라
DENDRO-PANAX
소자본 투자 / 안정적인 고소득 창출
황칠나라 식당모집
061 864 5788
황칠 전문 판매점과 더불어 기존식당에서 황칠제품을 활용하여 신메뉴 개발을 통한 고소득 창출
www.황칠나라.kr



명품황칠요리 황칠(愛)비법
황칠(愛)비법 진액은 식품첨가물입니다. 파우치 형태로 제작되어 쉽게 식품에 첨가할 수 있으며, 특히 육류나 어류 및 장류의 잡내를 없애주며 맛을 더욱 풍부하게 만듭니다.

과 영양
사과 놓칠 수 없는 황칠나라만의 고집!!!
황칠다담 (주)
전남 장흥군 장흥읍 배림리 69-3